‘동체대비 도량’ 금정산국립공원 시대 개막

3월 20일, 벡스코서 지정 기념식
제24호 금정산 국립공원 시대 개막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국민포장
불교계·시민단체 협력 결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부산지사장



3월 20일 열린 기념식에서 금정산이 대한민국 제24호 국립공원으로 공식 선포되며, 사찰과 자연의 상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마련됐다.

부산의 진산(鎭山)이자 천년고찰 범어사를 품은 금정산이 대한민국 제24호 국립공원으로 공식 선포되며, 사찰과 자연의 상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20일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국립공원의 날 및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기념식’을 개최하고, 금정산국립공원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정우 청와대 불자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금정산은 영남의 진산이자 부산 시민의 오랜 안식처이며, 천년고찰 범어사의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찰과 자연, 그리고 시민사회가 기나긴 시간 동안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마침내 이뤄 낸 이번 국립공원 지정은, 단순한 환경 보전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상생과 공존’의 위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축하했다.

국립공원 지정에 기여한 불교계 인사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이 국민포장을 수훈했으며,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이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정오 스님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범어사가 보여 준 포용력과 생태계 보전 노력, 행정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무공 스님은 백양사 토지의 국립공원 무상 임대와 적극적인 토지 교환 협의를 이끌며 행정적 난제를 해소했다.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국립공원 지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당부하는 가르침을 전했다. 스님은 “금정산은 예로부터 수많은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해 온 청정도량이자, 뭇 생명이 깃들어 살아가는 자비의 품”이라며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 삼아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온전히 살리는 진정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도량으로 거듭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정오 스님은 수훈의 영광을 불교계 전체로 돌리며, 사찰과 국립공원의 뗄 수 없는 인연을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대부분은 그 품안에 교구본사를 비롯한 큰 사찰을 품고 있다. 오늘 제가 받은 이 훈장은 결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전국 국립공원 곳곳에서 생태계와 전통문화를 묵묵히 지켜 온 불교계를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금정산은 도심의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안식처이자, 자연과 역사의 숨결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라며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 나아가 100년을 이곳 금정산에서 다시 그려 보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시민사회의 염원과 불교계의 협력이 빚어낸 결실이다. 지난 2005년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첫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14년 10만명 서명운동을 거쳐, 2019년 부산시의 공식 건의로 본격화됐다. 사유지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던 중, 2024년 11월 범어사가 부산시 및 시민단체와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정 과정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달 3일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자 제24호 국립공원으로 최종 고시됐다.

화엄승가회 ‘수행공동체’ 도약

3월 21일, 창립 11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스님들의 봉사모임인 화엄승가회(회장 대각 스님)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수행공동체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화엄승가회는 3월 21일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창립 제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회장 대각 스님과 전 회장 자인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 이사장 성림 스님을 비롯해 지상협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장, 해동고 관계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사진〉

회장 대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승가회의 지난 11년은 ‘어디에 불교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어디에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가’를 묻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앞으로 성과보다 방향을, 형식보다 진심을 살피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화엄승가회는 이날 창립을 기념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종립 부산해동고 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고, 부산불교교육대학과 나눔단체 부산정각원,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각각 발전기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김기홍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미소원 청년회, 자비나눔 ‘일일맛집’

3월 20일, 장학 지원 · 환경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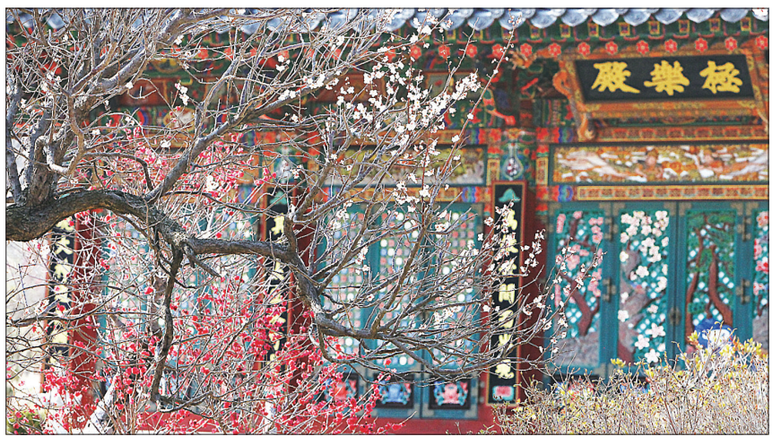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다겸)는 3월 20일 부산 미소원에서 ‘일일맛집’ 행사를 열고 나눔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따뜻한 한 끼 나눔’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 지원과 문화·복지 활동, 친환경 실천을 함께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수익금 전액은 미소원 청년회의 나눔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연종학림 주지 청명 스님, 대광명사 총무 원경 스님을 비롯해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이다겸 미소원 청년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다겸 청년회장은 “청년회는 2017년 출범 이후 10년간 장학지원과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 왔다”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청년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최초 ‘사찰형 민간정원’ 포항 원법사의 ‘힐링 포교’

사찰 진입로 1km 매화 군락
상춘객 북적이는 ‘봄꽃 명소’



포항 원법사 명상정원은 20여 만본의 수목이 장관을 이루며 시민을 위한 치유의 명상의 장이 되고 있다.

포항 원법사(주지 해운 스님)가 전국 최초 ‘사찰형 민간정원’ 지정을 기점으로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만발한 매화가 상춘객을 맞이하며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새로운 봄꽃 명소로 떠오른 것. 사찰 진입로부터 경내로 이어지는 약 1km 구간에 300여 그루가 넘는 백매, 청매, 홍매가 군락을 이루며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상춘객들을 맞고 있다.

매화 군락은 지난해 8월 산림청이 전국 최초 ‘사찰형 민간정원’으로 지정한 ‘원법사 명상정원’의 핵심 자산이다. 해운 스님과 신도들이 수년간 직접 땀 흘려 가꾼 이곳은 20여 만본의 수목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져, 도심 속 치유와 명상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찰형 민간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원법사는 3월 28일 한국정토학회와 공동으로 ‘정원, 역사와 문화를 품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전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신라불교로 정신문화와 생태문화를 꽃피우다’ 기조강연을 비롯해, 원법사 소장 문화유산인 ‘사리불아비담론’의 심식사상, 원법사 명상정원의 생태문화 활용 방안 등 5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원법사는 자비나눔 모범 도량이기도 하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자비의 쌀 나눔’을 통해 명절마다 2000포 이상의 쌀을 기탁해 소외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동국대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의 제1호 동참 사찰인 원법사는 최근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지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6억원을 쾌척했다.

주지 해운 스님은 “원법사 명상정원이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치유의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태 환경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포교의 장을 넓혀 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청년들을 위한 자비 나눔도 변함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 원법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반야암, 산사인문학 강좌 개설

설법전서 4월 11일부터 6주간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지안 스님)은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산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제9회 산사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문학적 사색’을 주제로 한 이번 강좌는 기술 문명의 범람 속에서 자칫 상실하기 쉬운 인간성의 본질을 불교적 통찰과 인문학적 시각으로 풀어 내기 위해 기획됐다.

4월 11일 인드라 스님의 ‘트로트에 담는 경건한 불심’을 시작으로 △18일 신한균 도예가의 ‘법기도자기, 진품의 복원과 창조’ △25일 임재욱 경북대 교수의 ‘삼국유사, 사실을 넘어 진실 전하기’가 이어진다. 이어 5월에는 △2일 윤지영 동의대 교수의 ‘100세 시대, 늙음의 품위에 대하여’ △9일 보일 스님(AI 부디즘 연구소장)의 ‘AI 시대와 AI 부디즘’ △16일 민영현 부산대 외래교수의 ‘환단고기, 진위론에 대한 역사철학적 토론’ 등이 진행된다. 010-8738-30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비오마인드’, 우수웰니스관광지

부산 지역 유일 신규 선정
신체·정신적 치유 거점 도약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의 마음 문화 웰니스 브랜드 ‘비오마인드(BEO Mind)’가 3월 17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6 우수웰니스 관광지 88선’에 신규 선정됐다. 올해 새로 지정된 전국 4개소 중 부산 지역에서는 범어사가 유일하다.〈사진〉

‘비오마인드’는 종교적 목적의 사찰 방문을 넘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산사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획된 범어사의 종합 웰니스 프로그램이자 브랜드다. 이번 평가는 범어사가 전통 사찰의 기능을 넘어 현대인을 위한 정신적 치유 공간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푸드(사찰음식 기반의 치유)’ 테마 부문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통 사찰음식을 치유와 수행의 과정으로 승화시키고, 금정산 숲길 걷기 명상인 ‘비오워크’ 및 템플스테이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차별화된 웰니스 경험을 제공한 점이 심사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범어사는 선문화교육관 관장 석산 스님(비오마인드 총괄)을 필두로 웰니스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실무팀의 운영 역량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오마인드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시, 부산관광공사와 협력해 신체적 치료와 정신적 치유가 결합된 메디투어를 연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세계적인 웰니스 명소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사 장경도감, 4기 교육 고불식

3월 21일, 전통판각 교육장서
“부처님 말씀 새기는 수행”



해인사 장경도감(이사장 혜일 스님, 해인사 주지)이 3월 21일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판각법 교육 4기 고불식을 봉행했다.〈사진〉

장경도감 전통판각 교육장에서 열린 고불식에는 이사장 혜일 스님과 팔만대장경 연구원장 경암 스님, 판각학교장 도융 스님을 비롯해 강사진과 교육생,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팔만대장경 연구원장 경암 스님은 고불문에서 “팔만대장경 전통 판각 기법을 배우고 익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교육생들의 서원을 전했다.

판각학교장 도융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교육이 전통 판각의 가치를 배우고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기술 습득을 넘어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수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경도감 이사장 혜일 스님은 “오늘날 전쟁과 기후위기, 자연재해, 인공지능 확산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새기는 판각 수행의 의미는 더욱 크다”며 “교육생들이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와 생명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회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석 각자장은 “교육생들이 칼과 나무에 익숙해지고 전통 판각의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통판각법 교육은 총 438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정관암, 제10회 ‘차시락의 밤’ 성료

3월 21일, 연주인상 시상도
대활 스님 “지역 가치 재발견”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 스님)이 차와 시, 음악으로 물들었다.

정관암은 3월 21일 경내에서 제10회 차시락(茶詩樂)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바이올린과 첼로 합주로 ‘아리랑’을 연주한 식전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울산연주인상 시상과 수상자 김민지 씨의 피아노 연주 ‘엘리자를 위하여’가 이어졌다. 이후 운영위원장 인사, 내빈 소개와 축사, 다양한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대활 스님은 인사말에서 “삼동면은 도자기 가마가 7곳에 이를 만큼 전통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제10회를 맞은 차시락의 밤이 바쁜 일상에서 멈춤과 비움을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2015년 시작된 차시락의 밤이 이제는 울주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정관암 들녘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쉼과 활력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달래 꽃길 걷기, 전통차 체험, 화전놀이,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